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정서전염성향의 유형 분류와 집단 예측요인 분석

김진숙*

서울디지털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통해 정서전염 민감도에 있어서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이는 잠재 집단을 탐색하고 공감관련 변인들(공감적 관심, 자비, 내수용자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변인들(직무소진, 우울, 불안)이 각 프로파일 집단 구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총 521명의 연구 참여자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어 성별, 연령, 직군을 통제하고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여 잠재적 집단을 추정한 결과, 5개의 집단이 도출되었다. 집단의 명칭은 집단 구분 변인들의 특징에 따라 각각 ① 낮은 부정정서전염 집단, ② 둔감 집단, ③ 일반 집단, ④ 자기비난 정서전염 집단, ⑤ 타인조망 정서전염 집단으로 정하였다. 이 중, 심리적 중재를 위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 ② 둔감 집단과 ④ 자기비난 정서전염 집단 및 ⑤ 타인조망 정서전염 집단의 세 가지 쌍 집단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집단 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감적 관심은 둔감 집단과 정서전염 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이었으며 둔감 집단 및 자기비난 정서전염 집단 대 타인조망 정서전염 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은 자비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디스트레스 변인으로서 직무소진은 둔감 집단 및 자기비난 정서전염 집단 대 타인조망 정서전염 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이었다. 정서전염 현상과 관련하여 공감적 관심, 자비 및 직무소진이 의미 있는 심리적 중재 요인이 될 수 있음이 시사되었으며 아울러 본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정서전염, 조망수용, 자기비난, 공감, 소진

* 주저자: 김진숙/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24
/Tel: 02-2128-3064/E-mail: jskim@sdu.ac.kr

I. 서론

정서전염은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목소리, 자세, 움직임 등을 자동적으로 모방하고 동조함에 의해 상대방과 유사한 정서를 느끼게 되는 경향성으로 정의된다(Hatfield, Cacioppo, & Rapson, 1994). 타인을 이해하고 정서적인 교류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의 시작 지점에 정서전염이 있다고 할 수 있다. de Vignemont과 Singer(2006)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거나 공감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정서전염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고 Eisenberg와 Fabes(1990)는 정서전염이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추측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정신화 과정의 첫 단계라고 보았다.

인지적인 추론이나 의미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공감과 다르게, 정서전염은 인지적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동적인 정서전이(emotional transfer) 과정으로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정서가 전염되었는지를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Hess & Blairy, 2001). 정서전염의 과정이 Darwin(1872/1965) 이래로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연구 대상이 되지 못했던(김미애, 이지연, 2015) 것에는 그러한 점도 이유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Hatfield 등(1994)도 정서전염의 과정이 자동적이며 신속하게 지나가서 알아차리기도 어렵거니와 경험적인 검증도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전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현상임을 역설하였다.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정서전염은 개인 대 개인을 넘어 집단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활발한 학문적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

1. 이론적 배경

정서전염의 과정에는 정서를 전염시키는 전달자(transmitter)와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catcher)가

있다(Hatfield, Cacioppo, & Rapson, 1994). 경영이나 조직심리학 영역에서는 전달자 입장인 리더의 정서전염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진행되어, 리더의 정서가 조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양한 결과들을 보고하였다(이슬기, 장재윤, 2014; 최대정 등, 2005). 또한 긍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능력은 직원의 정서적 역량을 반영하며(Matute, Palau-Saumell, & Viglia, 2018),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고(Verbeke, 1997), 직원과 고객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원으로도 간주되어 왔다(Hennig-Thurau, Groth, Paul, & Gremler, 2006). 김지영(2014)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가장 상관이 높은 것이 감사와 낙관성이라는 성격강점이었는데, 이러한 긍정적 품성은 긍정적 정서를 만들어낸다. 긍정 정서를 잘 교류하는 구성원들은 집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서로를 더 잘 돕는 경향을 보였다(Chi, Chung, & Tsai, 2011; Rhee, 2006). 긍정 정서전염을 유도한 연구에서(Barsade, 2002) 집단 내 갈등이 줄었고 구성원 간 협력이 증가하였으며 집단의 성과에서도 높은 평가를 보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한편, 자신의 정서전염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정서전염으로 인한 자신의 정서적 각성 상태의 원인을 적절하게 추론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강준, 2012; Ibanez, et al., 2011). 이러한 연구들에서 차폐기법(masking)을 통해 겹먹은 얼굴표정 자극을 제시하거나 역치 미만으로 어떤 얼굴표정 자극을 제시하였을 때, 피험자들은 그 얼굴표정에 상응하는 생리적 반응을 경험하지만 자신의 그러한 생리적 상태가 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추론에는 실패하였다. 즉 자신의 정서적 각성 상태가 타인의 정서를 포착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타인의 정서가 전염되고 이 정서전염이 자신에게 어떠한 정서적 변화를 일으키지만 이 과정을 인식하거나 자

신의 정서경험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추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하현주, 권석만, 2019).

Frederickson(2001)은 긍정 정서의 확장 및 축적 이론에서, 긍정 정서는 인지적 유연성을 증가시켜 주의를 확장하며 자원을 인식하게 하는데, 부정 정서는 이와 상반되게 주의의 폭을 협소하게 만들고 인지적 경직성을 유발하면서 생존을 위한 선택에 집중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정 정서에 노출된 사람은 유연하게 타인으로 조망을 확장하기 어렵고, 스스로에게 과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부정 정서전염을 유도한 연구에서 부정 정서전염은 개인적 고통과 자기초점적 주의를 유발하였다(Wood, Salzberg & Goldsamt, 1990).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전염된 정서의 출처를 정확히 추론하지 못하는 경향으로 인해 그 원인이 자기 내부에 있다고 오귀인하게 되면 불필요한 자기비난(self-criticism)에 빠지게 된다(하현주, 권석만, 2019; Gilbert, Procter, 2006; Low, Schauenburg & Dinger, 2020).

자기비난은 자신의 내적 경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고이자 태도 요소로서(Power 등, 2004), 자기 몰입의 정서 반응 상태와 높은 관련성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자기몰입과 높은 자기비난 성향은 정서전염 과정에서 개인에게 추가적인 취약성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조망 수용(persepective taking)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폭넓게 바라보고자 하는 것으로, 공감의 인지적 요소로 평가되기도 한다(Mehrabian & Epstein, 1972; 강일 등, 2009). 나아가 조망 수용은 다양한 심리장애의 보호요인이자 성숙한 인간관계의 필수 요소로서 강조되었다(Davis, 1980; Underwood & Moore, 1982; Gehlbach, 2004). 정서전염 과정에서 타인이 무엇을 느꼈는지 공감적으로 추론하고 조망을 확장하여 이해하려는 노력은 불필요한 자기비난으로부터 수용자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서전염의 수용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돌봄이나 고객응대 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타인의 정서를 잘

느끼는 것이 일종의 직업적 장점으로 여겨지기도 했다(Barsade, Constantinos, & Pillemer, 2018). 그러나 정서전염 민감도가 높을수록 더 정서적으로 소진된다는 연구 결과들(Moore & Cooper, 1996; Omdahl & O'Donnell, 1999; Siebert, Siebert & Taylor-McLaughlin, 2007; Verbeke, 1997; Wilkerson, 2009)에서 볼 수 있듯이, 역량으로서의 정서전염만이 아니라 정서전염으로 인한 소진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과도하게 공감하여 과잉 각성 상태가 되면 공감하는 태도를 철회시키며, 부정 정서에 대한 공감이 정서 수용자의 두뇌 통증회로를 활성화시킨다는 연구 결과(Decety, 2007)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은 경우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서전염과 관련하여 이처럼 긍정적 및 부정적인 결과들이 제시되는 이유는 정서전염에 대한 민감도 자체만이 아니라 다른 심리적 변인들이 개입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현주 등(2019)은 정서전염과 자비의 관계에서 자기몰입이 매개하여 자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서전염이 이타적 태도를 촉진하며(김정식, 김완석, 2007) 이러한 이타성은 자비의 주요 요소이기도 하지만 정서전염 과정에서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과잉 몰입하는 경우, 자비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과잉 몰입과 자기비난으로 이어지면 우울감(김정미, 조현재, 2009; Allen, Home, & Trinder, 1996)과 불안 및 분노를 경험하기 쉽다(Whelton & Greenberg, 2005).

최근 정신건강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주목받고 있는 내수용자각(Interoceptive awareness)은 정서 인식과 정서조절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ehling 등, 2012). 내수용자각이란 신체내부 감각 신호를 감지하고 해석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내수용감각(Feinstein 등, 2018)에 대한 자각으로 정의되고 있다(Mehling 등, 2018),

내수용자각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의 얼굴 표정에서 미세한 변화를 잘 인식하며(Terasawa 등, 2015) 타인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였다(Grynberg & Pollatos, 2015). 내수용자각은 정서의 조절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내수용자각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덜하며 정서조절 전략의 제한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완석, 심교린, 조옥경, 2016; Mehling 등, 2012). 신체감각을 감지하고 여기에 비판단적인 주의를 유지하며 감정과 신체감각 사이의 연결성을 인식하는 능력인 내수용자각(Mehling 등, 2012)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자각하고 보호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서적 상태를 인식하고 공감해주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정서전염의 잠재 집단 분류를 할 수 있다면, 단지 점수의 고저에 따른 정서전염 민감도의 유무만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차적 특성이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하는지 파악하고 치료의 전략을 세우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위 집단 별, 소진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도 시사점을 줄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정서전염의 하위 집단을 분류하는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여, 정서전염의 민감도에 있어서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이는 잠재집단을 탐색하고자 한다. 잠재집단 분류의 기준에 정서전염의 민감도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망수용 및 자기비난의 변인을 추가하여 분류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탐색적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공감 관련 변인들과 소진 관련 심리적 디스트레스 변인들이 각 프로파일 집단 구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의 개관을 통해 공감 관

련 변인으로서 공감적 관심, 자비, 내수용자각, 심리적 디스트레스 변인으로서 직무소진, 우울, 불안을 설정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인간-중심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의 분석방법으로서 집단 안에서 여러 하위집단을 파악하는데 활용되는 유용한 방법이다(Muthen & Muthen, 2000).

요약하자면, 본 연구의 목적은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정서전염 잠재 집단을 탐색하고 공감관련 변인들(공감적 관심, 자비, 내수용자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변인들(직무소진, 우울, 불안)이 각 프로파일 집단 구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긍/부정 정서전염의 민감도, 조망수용, 자기비난 수준에 따라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여 잠재집단을 도출한다. 둘째, 각 집단의 구분을 예측하는 심리적 변인으로서 공감 관련 변인과 소진 관련 심리적 디스트레스 변인들을 조사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한정하였으며, 전문적인 온라인 서베이 업체의 패널 가운데서 단순 무선할당의 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참여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연구설명문을 읽고 참여에 동의하면 설문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조사 완료 후 소정의 사례금이 지급되었다. 최종적으로 서베이 업체의 불성실 응답 및 미응답 스크리닝을 통해 최종 521명의 연구 참여자가 선정되었다. 연구 참여자 521명 중 남성 265(50.9%)명, 여성이 256명(49.1%)이고, 연령은 20~29세 135명(25.9%), 30~39세 128명(24.6%), 40~49세 125명(24.0%), 50~59세 104명(20.0%), 60세 이상 29명(5.6%) 순으로 60세 미만 집단은 고르게 분포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직

군은 ‘직접 대면’ 182명(34.9%), ‘돌봄 관련’ 91명(17.5%), ‘간접 대면’ 15명(2.9%), ‘기타 대인 서비스’ 33명(6.3%), ‘그 외 업무 또는 무직’ 200명(38.4%)으로 보고되었다.

2. 측정도구

한국판 정서전염 척도(Korean Emotional Contagion Scale: K-ECS). Doherty(1997)가 개발하고 김미애, 이지연(2015)이 타당화한 척도로서, 타인의 정서에 자동적으로 동기화되는 정서전염 민감성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긍정적 정서전염 요인 6문항과 부정적 정서전염 요인 4문항이 포함되어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원척도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3이었으며 긍정적 정서전염은 .85, 부정적 정서전염은 .62로 나타났다.

조망수용 척도(Perspective Taking Scale)/공감적 관심 척도(Empathic Concern Scale). 공감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자 Davis(1980)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를 강일 등(2009)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하였다. 이 한국판 척도의 하위 요인인 조망수용 척도와 공감적 관심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한국판 타당화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0이었다.

자기비난 척도(Self-Criticism: SC). 우울감과 연관되어 있는 태도의 측면에 초점을 두어 주관적인 경험을 측정하고자 Blatt 등(1976)이 우울 경험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이를 조재임(1996)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하였으며 이 한국판 우울경험 질문지 중 자기비난의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리커트 척도이다. 자기비난 척도는 죄책감, 내적 공허감, 자신에 대한 불만족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을 측정한다. 타당화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3으로 나타났다.

자비 척도(Lovingkindness-Compassion Scale:

LCS). 본 척도는 서양의 자기자비 척도나 자비적 사랑 척도의 개념적 한계를 보완하고 불교적 자비의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인 Cho 등(2018)이 개발한 척도이다. 사랑, 연민, 자기 중심성(역문항)의 3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5점 리커트의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개발 연구에서 제시된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5이었다.

다차원 내수용자각 척도(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Interoceptive Awareness: MAIA). 내수용자각의 측정을 위해 Mehling 등(2012)이 개발하고 김완석 등(2006)이 한국판 타당화 작업을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척도는 총 32문항,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6개의 하위 요인을 지니며 감각자각, 감각수용, 주의조절, 심신연결성 자각, 감각복귀, 신뢰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판 타당화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94이었다.

직무소진 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 MBI-GS). 직무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Schaufeli 등(1996)이 개발하고 신강현(2003)이 한국판으로 타당화를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직업군에서 심리적 소진을 측정하며 총 15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개의 하위 요인으로 정서적 소진, 냉소, 직업적 효능감(역문항)이 있다. 타당화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1이었다.

우울 척도(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9). Spitzer등(1999)이 우울을 탐지하고 진단하는데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최홍석 등(2007)이 한국판으로 타당화 작업을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4점 척도이다. 한국판 척도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5로 나타났다.

불안 척도(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GAD-7). Spitzer 등(2006)이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서종근(2015)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로 이루어져 있다. 제시된 증상 경험을

지난 2주 동안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표시한다. 한국판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92이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긍정/부정 정서전염과 조망수용, 자기비난의 심리적 변인에 따른 집단 구분을 위하여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추정된 잠재적 프로파일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측변인의 효과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서 탐색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계층 분석(latent class analysis)에서는 Mplus 7.1을 사용하고, 이외의 분석에는 오픈소스 통계 프로그램인 R 4.3.1.을 이용하여 수집된 521명의 설문 자료에 대한 분석을 적용하였다.

먼저 연구에 사용되는 심리적 변인들에 대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의 기술통계를 산출하여 각 변인의 분포적 특성과 산포도를 살펴보고,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사용하여 각 변인을 측정하는 척도들의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잠재계층 분석, 집단 구분에 대한 예측변인의 탐색 각 단계에서 질적으로 구분되는 변인 군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서는 긍정 정서전염, 부정 정서전염, 조망수용과 자기비난의 네 가지 심리적 변인을 집단 구분의 공변량으로 사용하였다. 이때, 참여자 집단의 인구사회학적인 비 동질성이 집단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통제변인으로 성별, 연령 및 직군을 사용하여 혼합 잠재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투입된 연속 변인들의 관계를 통해 집단을 잠재변수로 추정하여, 상호배타적인 기저 집단 구조를 밝히는 통계적 기법이다. 모형의 선택은 AIC, BIC의 정보지수, adjusted BIC, Entropy와 같은 정보지수와 분류 질의 동시 평가, 그리고 검정을 통한 모형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때 최종 모형의 결정은 분류된 집단의 수, 해석 가능성, 타 심리변인과의 의미론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시한다. 이후 3단계 접근법에 따라 (Asparouhov & Muthén, 2014), 정서전염성향에 관련된 독립변인이 추론된 잠재집단의 구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프로파일 집단의 쌍별 비교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였다.

III. 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잠재 프로파일의 분류와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측 변인에 대한 탐색적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분석, 각 변인의 측정 도구에 대한 내적합치도 결과를 표1에 제시하였다. 먼저, 잠재 프로파일 집단의 추정에 사용된 변인을 살펴보면, 정서전염 하위 요인인 긍정 정서전염과 부정 정서전염은 .394로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인다. 조망수용, 자기비난 및 긍/부정 정서전염 간의 상관계수는 -.167~.198 사이의 값으로 낮은 상관을 보여, 공선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 직접 투입되지는 않았으나 정서전염 총 요인은 하위 요인인 긍/부정 정서전염의 상관계수 각각 .89, .77로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예측 변인인 직무소진, 우울, 불안, 자비, 공감적 관심, 내수용자각 사이에는 중간에서 낮은 수준의 상관이 나타났으나, 심리적 디스트레스 변인으로 직무소진, 우울, 불안 사이에 .557~.716으로 중간 수준 이상의 상관이 관찰되어 부적 요인들의 관련성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감 관련 변인들에서 자비와 공감적 관심, 내수용자각 사이의 상관계수는 .249~.552 수준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자기비난, 불안, 내수용자각의 세 변인은 변동 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가 1에 근접하거나 1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개인 간 편차를 가진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왜도와 첨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인 절댓값 2를 초과하는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요인 별 내적

합치도는 전반적으로 .80~.90 수준의 양호한 값을 보였고, 척도의 하위 요인인 부정 정서전염, 조망수용, 공감적 관심에서 .59~.70의 다소 낮은 내적 합치도 계수가 보고되었다. 이는 전체 척도 대비 적은 문항수로 인해 신뢰도가 낮게 추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표 1>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내적합치도 및 변인들 간 상관관계 (N=521)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정서전염		.890***	.770***	.332***	.017	-.142**	-.146***	-.115**	.387***	.436***	.223***
2.긍정 정서전염			.394**	.338**	-.112*	-.256***	-.236***	-.216**	.431***	.393**	.284**
3.부정 정서전염				.198***	.191***	.068	.035	.071	.176***	.328***	.053
4.조망수용					-.167***	-.309***	-.226***	-.198***	.419***	.502***	.437***
5.자기비난						.487***	.506***	.503***	-.523***	-.177***	-.215***
6.직무소진							.603***	.557***	-.493***	-.274***	-.298***
7.우울								.716***	-.480***	-.268***	-.184**
8.불안									-.431***	-.186***	-.177***
9.자비										.552***	.327***
10.공감적 관심											.249***
11.내수용자각											
평균	38.378	24.2	14.179	23.393	9.912	39.145	8.528	5.088	51.791	23.369	7.392
표준편차	5.004	3.472	2.487	3.271	15.092	14.085	5.682	4.867	7.29	3.197	14.146
왜도	-.596	-.752	-.339	.084	.041	-.255	.529	1.1	.058	-.168	.175
첨도	1.36	1.691	.424	.114	1.203	.078	-.276	.878	.422	.889	.38
내적합치도	.81	.86	.59	.67	.88	.91	.89	.92	.83	.70	.94

* $p < .05$, ** $p < .01$, *** $p < .001$.

2. 잠재 계층 분류 결과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정서전염(긍정, 부정)의 잠재집단을 분류하였다. 관련 변인으로 조망수용 및 자기비난을 프로파일 분석에 공변량으로 투입하였으며, 성별, 나이(연속변수)와 직군 구분(5개 집단; 직접 대면, 돌봄 관련, 간접 대면, 기타 대인 서비스, 그 외 업무 또는 무직)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잠재적 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2개에서 5개까지의 모형을 적합하였으며, 동일 모형을 반복 적합 시에도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2에 제시한 분석결과를 보면, 정보지수인 AIC, saBIC(sample size-adjusted BIC)는 집단의 수가 늘어날수록 감소하는 반면, BIC는 3개 집단에서 최소가 되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Entropy 지수는 4개 집단까지는 .7 이하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5개 집단에서 .738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8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형 비교에서는 대부분의 비교가 단순 모형(집단의 수가 작은 모형)을 기각하지 못하였는데, 통상적인 잠재 프로파일 분석과 달리, 탐색적으로 정서전염, 조망수용 및 자기비난의 상이

한 변인이 공변량으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판단된다. 2~5개 집단에 대해서 각각 잠재계층의 분류를 확인한 결과, 2,3개 집단에서는 긍정 정서전염, 부정 정서전염에 대해서 집단 간에 표준화 점수 $-5 \sim 5$ 사이로 분포하여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특정 집단이 자기비난 수준이 2표준편차 이상 높게 분포되어 자기비난 단일 요인에 의존하는 편향적 모형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4개 이상 집단에서 Entropy 기준에서 가장 양호하고, 연구 변인들을 통한 기저 집단 분류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5개 집단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 모형을 통해 구분된 집단의 공변량 분포와 형태를 각각 표3과 그림1에 제시하였다. 정서전염 민감성과 관련변인들이 드러내는 양상을 중심으로 집단의 명칭을 각각 ① 낮은 부정 정서전염 집단, ② 둔감 집단, ③ 일반 집단, ④ 자기비난 정서전염 집단, ⑤ 타인조망 정서전염 집단으로 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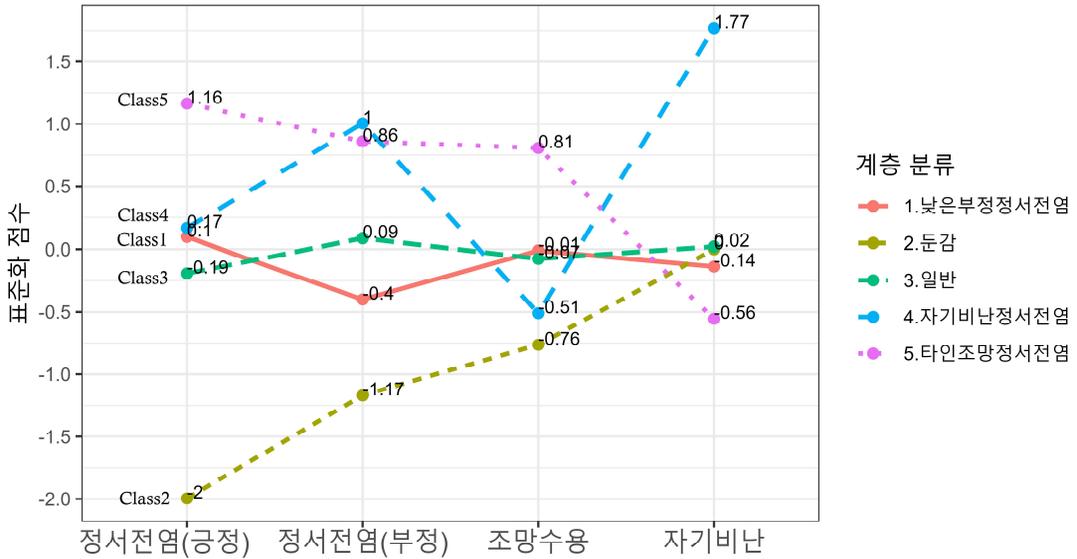
였다. 낮은 부정 정서전염 집단은 긍정 정서전염과 조망수용 및 자기비난 수준은 일반적인 범위이면서 부정 정서전염에 대한 민감도만 낮은 집단이었다. 둔감 집단은 모든 집단 중에서 가장 긍/부정 정서전염의 민감도가 떨어지고 조망수용도 낮은 집단이었다. 특히 긍정 정서전염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낮았으며 자기비난에서는 평균 수준이었다. 일반 집단은 정서전염의 민감도와 조망수용 및 자기비난 수준이 모두 평균 범위인 집단이다. 자기비난 정서전염 집단은 정서전염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면서 조망수용은 낮은 집단이었는데 특히 부정 정서전염에 대한 민감도와 자기비난 수준이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타인조망 정서전염 집단은 정서전염의 민감도가 높고 조망수용 역시 높았으며 자기비난 수준은 낮았다. 특히 긍정 정서전염과 조망수용이 집단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자기비난 수준은 가장 낮았다.

<표 2> 모형의 적합도 분석

잠재 집단 수	정보지수		분류 질		모형 비교		각 집단의 구성(N)
	AIC	BIC	saBIC	Entropy	LMRLRT p-value	BLRT p-value	
2	11932.1	12042.75	11960.22	.671	.0135	.0145	106 / 415
3	11880.19	12037.65	11920.21	.575	.2780	.2840	111 / 119 / 291
4	11836.5	12040.78	11888.42	.635	.1322	.1372	49 / 201 / 166 / 105
5	11797.69	12048.78	11861.5	.738	.1138	.1196	184 / 48 / 161 / 40 / 88

<표 3> 정서전염 성향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결과(5계층)- 비표준화 점수

집단	N (명)	비율 (%)	정서전염, 조망수용, 자기비난 평균(표준편차)				
			정서전염합	긍정 정서전염	부정 정서전염	조망수용	자기비난
1	184	35.3	37.72 (3.00)	24.53 (2.09)	13.18 (2.12)	23.36 (3.09)	88.83 (12.83)
2	48	9.2	28.54 (3.73)	17.27 (2.69)	11.27 (2.07)	20.90 (2.42)	90.92 (10.01)
3	161	30.9	37.93 (2.72)	23.53 (2.04)	14.39 (1.74)	23.15 (2.88)	91.21 (11.71)
4	40	7.7	41.45 (3.63)	24.77 (3.09)	16.68 (2.07)	21.73 (3.49)	117.60 (12.55)
5	88	16.9	44.56 (2.47)	28.24 (1.67)	16.32 (1.82)	26.03 (2.83)	82.53 (15.18)
계	521	100	38.38 (5.00)	24.20 (3.47)	14.18 (2.49)	23.39 (3.27)	90.91 (15.09)



<그림 1> 정서전염 성향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3.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한 예측변인 - 집단 구분 예측모형의 탐색

본 연구에서는 잠재 프로파일 집단의 추정에서 성별, 연령, 직군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따라서 공선성을 가지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공변량에 투입하지 않았다. 정서전염 잠재집단의 구분에 유의미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선정된 두 가지 변인 군 즉, 공감관련 변인(공감적 관심, 자비, 내수용자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변인(우울, 불안, 직무소진)을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해당 변인들 중 집단을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5개 집단 전체에 대한 10번의 쌍별 비교를 수행하는 대신, 심리건강에 대한 중재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② 둔감 집단, ④ 자기비난 정서전염 집단, ⑤ 타인조망 정서전염 집단의 세 집단 간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세 쌍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4의 결과를 보면, 우선 둔감 집단과 자기비난 정서전염 집단의 비교에서는 ‘공감적 관심’이 두 집

단을 구분하는데 유의미한 변인으로 보고되었으며 (Est=.24, $p<.05$), 이는 공감적 관심이 높아질 때 둔감 집단보다는 자기비난 정서전염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27 배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둔감 집단과 타인조망 정서전염 집단의 비교에서는 ‘공감적 관심(Est=.59, $p<.01$)’, ‘자비(Est=.24, $p<.01$)’, 그리고 ‘직무소진(Est=-.18, $p<.01$)’의 세 변인이 집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관련 변인인 공감적 관심과 자비가 높아질 경우 둔감 집단보다 타인조망 정서전염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1.8배와 1.27배 만큼 높아지며, 반대로 직무소진이 높아질 경우, 타인조망 정서전염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84 배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앞선 결과와 종합하면 둔감 집단과 두 정서전염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공감적 관심이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보고되었다.

자기비난 정서전염 집단과 타인조망 정서전염 집단을 비교한 결과, ‘자비(Est=.31, $p<.05$)’와 ‘직무소진(Est=-.10, $p<.05$)’ 두 변인이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보고되었다. 자비가 높아지면 타인조망 정서전염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36배 높아지고, 반대로 직
무소진이 높아지면 타인조망 정서전염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91배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5개 잠재계층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에 대한 2단계 추정 결과

		둔감(준거) vs 자기비난 정서전염		둔감(준거) vs 타인조망 정서전염		자기비난 정서전염(준거) vs 타인조망 정서전염	
		Est(S.E.)	OR(95% CI)	Est(S.E.)	OR(95% CI)	Est(S.E.)	OR(95% CI)
공감관련 변인	공감적 관심	.24(.11)*	1.27 (1.02 - 1.62)*	.59(.2)**	1.8 (1.29 - 2.84)**	.22(.18)	1.24 (.88 - 1.82)
	자비	-.02(.06)	.98 (.86 - 1.12)	.24(.09)**	1.27 (1.08 - 1.56)**	.31(.12)*	1.36 (1.13 - 1.84)*
	내수용자각	0(.02)	1.00 (.96 - 1.05)	.02(.03)	1.02 (.96 - 1.09)	.02(.03)	1.02 (.95 - 1.09)
심리적 디스트레스 변인	우울	.08(.07)	1.08 (.94 - 1.26)	.03(.13)	1.03 (.8 - 1.34)	.02(.12)	1.02 (.82 - 1.31)
	불안	.09(.08)	1.09 (.94 - 1.29)	-.02(.12)	.98 (.76 - 1.24)	-.2(.13)	.82 (.61 - 1.04)
	직무소진	.02(.03)	1.02 (.96 - 1.1)	-.18(.07)**	.84 (.71 - .94)**	-.1(.05)*	.91 (.81 - .99)*

* $p < .05$, ** $p < .01$.

IV. 논의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정서전염 민감도에 있어서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이는 잠재 집단을 탐색하고 공감 관련 변인들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변인들이 각 프로파일 집단 구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를 통해 정서전염 현상과 관련한 심리적 증세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 시, 정서전염의 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조망수용과 자기비난 변인을 공변량으로 투입하여 정서전염 잠재 집단을 구분하였다. 잠재 집단을 분류한 후,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정서전염 집단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선정된 공감관련 변인(공감적 관심, 자비, 내수용자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변인(직무소진, 우울, 불안) 중 집단의 구분을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

하였다.

연구 참여자 및 연구 변인들에 대한 기초통계에 서 볼 때, 참여자들의 성별 및 연령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으나 60세 이상의 참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어 고령층 대상으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에서 무직까지 직장 상황도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상관은 선행 연구에서의 결과들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서 5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이 모형의 적합도와 해석 가능성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도출된 5개의 잠재집단에 나타난 양상과 분류 기준의 특징을 고려하여 각각 낮은 부정 정서전염 집단, 둔감 집단, 일반 집단, 자기비난 정서전염 집단, 타인조망 정서전염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프로파일 양상으로 볼 때, 자기비난 정서전염 집단이 취약 집단으로, 타인조망 정서전염 집단이

적응 집단으로 판단되었는데, 특징적인 것은 자기비난 정서전염 집단과 타인조망 정서전염 집단에서 모두 긍정 및 부정 정서전염의 민감도가 타 집단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전염과 관련하여 긍정 정서뿐만 아니라 부정 정서전염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적응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긍정 및 부정 정서전염의 민감도만으로는 심리적 건강이나 부적응을 추정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또한 일부에서는 부정 정서전염을 정신건강에 부정적이라고 보는 인식도 있으나(최민정, 홍지선, 안숙자, 2023), 부정 정서전염을 포함한 정서전염 자체가 공감의 선행요소이며 타인을 이해하는 정신화 과정의 출발점이라는 선행 연구들(de Vignemont & Singer, 2006; Eisenberg & Fabes, 1990)에서의 제안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자기비난 및 타인조망 정서전염 집단에서의 이러한 양상은 정서전염의 민감도만이 아니라 다른 심리적 요인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정서전염의 영향이 파악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둔감 집단은 긍/부정의 정서전염 민감도가 모두 매우 낮아서 정서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거나 정서를 처리하는데 어떠한 심리적 저항이 있는 집단일 것으로 추론되었다. 따라서 자기비난 정서전염 집단과 타인조망 정서전염 집단 및 둔감 집단의 세 가지 집단이 심리적 중재에 시사점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공감 관련 변인들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변인들이 이들 세 집단을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정서전염과 관련이 깊은 공감관련 변인들(공감적 관심, 자비, 내수용자각)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변인들(직무소진, 우울, 불안)을 예측변인으로 하였을 때, 이들 세 집단 간 쌍별 비교분석 결과에서 차별적 양상이 나타났다. 둔감집단과 비교하여 자기비난 및 타인조망 정서전염 집단에서 공감적 관심이 유의한 예측변인이었으며 공감적 관심이 높을수록 자기비난 또는 타인조망 정서전염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역시 정서전염이 공감에

앞서 이루어진다는 논의들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되며 공감의 출발이 또한 공감적 관심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해할만 하다.

또한 분석 결과는 공감적 관심만으로는 적응적/부적응적 정서전염 집단을 구분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자기비난 정서전염 집단과 타인조망 정서전염 집단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자비가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는데, 자비가 높으면 타인조망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것은 자비가 타인을 향한 자애로운 마음과 이타주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선행 연구 결과의 방향과도 일치한다(하현주 등, 2019). Frederickson (2001)이 자비와 같은 긍정 정서가 주의의 폭을 확장함으로써 인지적 유연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입증한 바와 같이, 자비로운 태도는 타인을 향해 주의를 확장하게 하여 타인의 관점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서적인 과잉 각성이 공감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Figley, 2013)과 Singer와 Klimecky(2014)의 연구에서 공감 훈련은 통증의 두뇌 회로를 각성시키고 자비 훈련은 긍정 정서 회로와 연관된다는 결과의 맥락에서, 본 연구 결과를 이해하였다. 적응적 집단과 그렇지 않은 정서전염 집단의 구분에서 공감이 아닌 자비의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비는 자신 및 타인의 고통과 그 보편성을 인식하고 수용하며, 공감과 달리 타인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동기와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Strauss 등, 2016). 이러한 자비의 속성이 정서전염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염된 정서에 보다 건강하게 반응하도록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끄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한편 심리적 디스트레스 변인 중 직무소진은 둔감 집단/자기비난 정서전염 집단 대 타인조망 정서전염 집단을 구분하는 예측변인이었는데, 소진이 높을수록 타인조망 정서전염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낮았다. 직무소진의 양상 가운데 낮은 효능감에서 보이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 의심하고

평가절하 하는 태도(신강현, 2003)는 자기몰입적인 자기비난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를 해석해 볼 수 있겠다. 특히 정서전염이 이타성과 관련이 깊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정식 등, 2007)에 비추어 볼 때, 정서전염 민감도가 높은 사람이 책임감을 과도하게 지각하면 직무소진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정서전염 수준이 높은 사람에 대한 직무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자비를 실행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에서(Luks, 1988), 이들은 기분이 매우 좋고 활력이 생긴다고 보고하였는데, 정서전염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이 아니라 자비로운 태도로 나아가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타인을 향한 조망을 확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서전염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태도임을 시사한다. 정서적 감수성이 개인의 기질적 속성인 것처럼, 정서전염 민감도가 개인의 성향적 특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때, 정서전염 민감도 자체의 변화를 피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힘든 일이다. 따라서 보다 적응적인 정서전염 과정을 위한 심리적 중재에 있어서 공감적 관심과 자비 및 직무소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이 시사된다 하겠다.

한편, 공감 관련 변인 중 내수용자각은 집단의 구분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이것은 내수용자각이 타인의 정서를 포착하고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며 조절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Mehling, 2012; Terasawa 등, 2015)과 다소 상충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신체내부의 감각에 기울이는 주의의 다양한 차원을 측정하는 내수용자각에 대한 자기보고가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피험자에 따라서는 자신의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또한 내수용자각의 하위 요인들이 측정하고 있는 주의의 차원이 매우 다양해서(김완석 등, 2016) 하위 요인별로 편차가 클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수용자각의 큰 편차 역시 이러한 맥

락에서 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내수용자각이 정서전염 집단의 구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하위 요인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특히 정서와의 연결성이나 불편한 정서를 다루는 것과 관련된 심신 연결성 자각 요인이나 감각복귀 요인과의 관련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해볼만 하다.

심리적 디스트레스 변인들 중에서는 우울과 불안은 집단 구분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과 불안 측정 도구가 주요 우울장애와 범불안장애 진단기준에 맞추어 제작된 척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정도의 우울과 불안을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은데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추후 연구에서는 정서전염 집단 구분을 예측할 때, 우울 및 불안의 측정 도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예측 변인과의 관계 분석에서 다루지 않은 낮은 부정 정서전염 집단은 일반집단과 유사하지만 부정 정서전염에서만 유의하게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집단이 잠재적으로 부정정서 자극에 대해 회피나 거리두기를 하는 집단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낮은 부정 정서전염 집단과 긍정 및 부정 정서 모두에서 낮은 둔감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정서전염 상황에서 정서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전 연구설계에서 정서전염성향 유형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종속변수 군을 설정하지 못하여, 추정된 잠재 유형의 분산분석을 통한 예측적인 설명력과 의미망을 탐색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또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의 모형 적합도와 분류의 질이 다소 낮게 보고되었는데, 이는 상관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정서전염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인 긍정 정서전염과 부정 정서전염처럼 상반된 면을 가진 변인을 투입한 한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하위요인은 정서전염을 구성하는 양면으로 하나의 완결된 구성개념을 이룬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상반되는 측면을 지닌 변인을 같이 투입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두 정서전염 하위요인의 차이나 심리적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의 추가적인 한계점으로는 먼저 직군을 직접 대면과 돌봄 및 간접 대면 등으로 분류하였지만 이러한 직군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통계분석 방법 상 직군 변인은 통제되었으나, 돌봄이나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 직종의 경우 정서전염 현상이 매우 활발하고 정서전염의 민감도가 미치는 영향이 개인에게 매우 클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분석이나 향후 연구에서 이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것은 부정정서전염을 측정하는 척도의 문제이다. 내적합치도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요구되는 수준보다 약간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척도의 타당화 연구를 포함한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가 .52~.62 사이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김미애, 이지연, 2015; 문태호, 송원영, 2022), 이는 적은 문항 수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척도의 타당화연구 과정에서 일부 문항수가 탈락하여 현재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부정정서전염 척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 척도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일, 기선완, 김성은, 정범석, 황지희, 송지은, 김지웅 (2009). 한국어판 대인 관계 반응성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48(5), 352-358.
- 강준 (2012). 정서 점화 효과에 기반한 공감의 개인차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미애, 이지연 (2015). 한국판 정서전염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305-323.
- 김완석, 심교린, 조옥경 (2016). 한국판 다차원 신체자각척도(K-MAIA): 개발과 타당화. *스트레스학회지*, 24(3), 177-191.
- 김정미, 조현재 (2009).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비난 및 의존성의 역할: 대구 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2), 283-306.
- 김정식, 김완석 (2007). 이타행동의 유발요인으로서 정서전염: 문화변인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2), 55-76.
- 김지영 (2014). 대학생의 성격강점 비교: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만족도를 중심으로. *미래사회*, 5(1), 79-95.
- 문태호, 송원영 (2022). 소셜 미디어 불안과 분노전염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8(4), 717-748.
- 서종근 (2015). 편두통 환자에서 범불안장애 설문지의 타당성 연구. 박사학위청구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신강현 (2003). 일반직 종사자를 위한 직무 소진 척도 (MBI-GS)에 대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6(3), 1-17.
- 이슬기, 장재윤 (2014). 상사의 분노표출이 창의 과정 몰입에 미치는 영향: 부정 정서의 매개효과와 리더 동일시의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7(2), 339-366.
- 조재임 (1996). 우울의 두 차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청구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최대정, 박동건, 최가영 (2005). 리더의 정서 표현이 팀 구성원의 정서경험에 미치는 영향: 정서규범과 정체화 수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8(2), 201-224.
- 최민정, 홍지선, 안숙자 (2023). 중급상담자의 '정서전염'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학습자중심 교과교*

- 육연구, 23(8), 505-524.
- 최홍석, 최지호, 박기호, 주규진, 가혁, 고희정, 김성열 (2007). 주요우울장애의 선별 도구로서 한국판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의 표준화. *가정의학회지*, 28(2), 114-119.
- 하현주, 권석만 (2019). 자비 체험의 심리학적 탐색과 자비 조망 훈련의 효과 검증.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Allen, N. B., Home, D. J., & Trinder, J. (1996).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Descriptive features and differential diagnosis.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2, 505-530.
- Asparouhov, T., & Muthe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 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 Barsade, S. G. (2022). The ripple effect: Emotional contagion and its influence on group behavior.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7, 644-675.
- Barsade, S. G., Constantinou, G. V., & Pillemer, J. (2018). Emotional contagion in organizational life.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17, 1-15.
- Blatt, S. J., D'Afflitti, P., & Quinlan, D. M. (1976). Experience of depression in normal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 383-389.
- Chi, N. W., Chung, Y. Y., & Tsai, W. C. (2011). How do happy leaders enhance team success?: The mediating role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group affective tone, and team process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1(6), 1421-1454.
- Cho, H., Noh, S., Park, S., Ryu, S., Misan, V., & Lee, J. S. (2018).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Lovingkindness-Compassion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4, 141-144.
- Darwin, C. (1872/1965).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avis, M. H. (1980).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Decety, J. (2007). A social cognitive neuroscience model of human empathy. In: Harmon-Jones E., & Winkelman, P. (Eds.). *Social neuroscience: Integrating biological and psychological explanations of social behavior*. New York: Guilford Press.
- de Vignemont, F., & Singer, T. (2006). The empathic brain: How, when and why? *Trends in Cognitive Science*, 10(10), 435-441.
- Doherty, R. M. (1997). Emotional contagion Scale: A measure of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Nonverbal Psychology*, 21(2), 131-154.
- Eisenberg, N., & Fabes, R. A. (1990). Empathy: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relation to prosocial behavior. *Motivation and Emotion*, 14, 131-149.
- Feinstein, J. S., Khalsa, S. S., Yeh, H., Al Zoubi, O., Arevian, A. C., & Wohlrab, C. (2018). The Elicitation of Relaxation and interoceptive Awareness Using Floatation Therapy in Individuals With High Anxiety Sensitivity. *Biol Psychiatry Cong Neurosci Neuroimaging*, 3(6), 555-562.
- Figley, C. R. (2013). *Compassion fatigue: Coping with secondary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ose who treat the traumatized*. Routledge.
-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226.

- Gehlbach, H. (2004). A new perspective on perspective taking: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conceptualizing an aptitude.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6(3), 207-234.
- Gilbert, P., & Procter, S. (2006). Compassionate mind training for people with high shame and self-criticism: overview and pilot study of a group therapy approach.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3(6), 353-379.
- Grynberg, D., & Pollatos, O. (2015). Perceiving one's body shapes empathy. *Physiology & behavior*, 140, 54-60.
- Hatfield, E., Cacioppo, J., & Rapson, R. (1994). *Emotional contag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nning-Thurau, T., Groth, M., Paul, M., & Gremler, D. D. (2006). Are all smiles created equal?: How emotional contagion and emotional labor affect service relationships. *Journal of Marketing*, 70(3), 58-73.
- Hess, U., & Blairy, S. (2001). Facial mimicry and emotional contagion to dynamic emotional facial expressions and their influence on decoding accurac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physiology*, 40(2), 129-141.
- Ibanez, A., Hurtado, E., Lobos, A., Escobar, J., Trujillo, N., Baez, S., & Decety, J. (2011). Subliminal presentation of other faces (but not own face) primes behavioral and evoked cortical processing of empathy for pain. *Brain research*, 1398, 72-85.
- Low, C. A., Schauenburg, H., & Dinger, U. (2020). Self-criticism and psychotherapy outcom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75, Article 101808.
- Luks, A. (1988). Helpers high. *Psychology Today*, 22(10), 39-42.
- Matute, J., Palau-Saumell, R., & Viglia, G. (2018). Beyond chemistry: the role of employee emotional competence in personalized services.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32(3), 346-359.
- Mehling, W. E., Acree, M., Stewart, A., Silas, J., & Jones, A. (2018). The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Interoceptive awareness, Version 2 (MAIA-2). *PLoS ONE*, 13(2), e0208034.
- Mehling, W. E., Price, D., Daubenmier, J. J., Acree, M., Bartmess, E., & Stewart, A. (2012). The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Interoceptive Awareness (MAIA). *PLoS ONE*, 7(11), e48230.
- Mehrabian, A., & Epstein, N. (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 525-543.
- Moore, K. A., & Cooper, C. L. (1996). Stress in mental health professional: A theoretical overview.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42(2), 82-89.
- Muthen, B., & Muthen, L. K. (2000). Integrating person centered and variable 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 Omdahl, B. L., & O'Donnell, C. (1999). Emotional contagion, empathic concern and communicative responsiveness as variables affecting nurses' stress and occup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9(6), 1351-1359.
- Power, T. A., Zuroff, D. C., & Topciu, A. (2004). "covert and overt expression of self-criticism and perfectionism and their relation to depress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8, 61-72.
- Rhee, S. Y. (2006). Shared emotions and group

- effectiveness: The role of broadening-and-building interactions. In K. M. Weaver (Ed.), *Proceedings of the 65th annual meeting of the Academy of Management*. Atlanta, GA: Academy of Management.
- Schaufeli, W. B., Leiter, M. P., Maslach, C., & Jackson, S. E. (1996).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Test Manual*,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iebert, D. C., Seibert, C. F., & Taylor-McLaughlin, A. (2007). Susceptibility to emotional contagion: Its measurement and importance to social work.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3*(3), 47-56.
- Singer, T., & Klimecki, O. M. (2014). Empathy and compassion. *Current biology*, *24*(18), R875-R878.
- Spitzer, R. L., Kroenke, K., & Williams, J. B. (1999). Validation and utility of a self-report version of Prime-MD: The PHQ primary care study, Primary Care Evaluation of Mental Disorders,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2*(18), 1737-1744.
- Spitzer, R. L., Kroenke, K., Williams, J. B., & Lowe, B. (2006). A brief measure for assessing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the GAD-7.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66*(10), 1092-1097.
- Strauss, C., Taylor, B. L., Gu, J., Kuyken, W., Baer, R., Jones, F., & Cavanagh, K. (2016). What is compassion and how can we measure it? A review of definitions and measur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47*, 15-27.
- Terasawa, Y., Kurosaki, Y., Ibata, Y., Moriguchi, Y., & Umeda, S. (2015). Attenuated sensitivity to the emotions of others by insular lesion, *Frontiers in Psychology*, *6*, 1314.
- Underwood, B., & Moore, B. (1982). Perspective-taking and altruism. *Psychological Bulletin*, *91*(1), 143-173.
- Verbeke, W. (1997).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al contagion of salespersons: Its effect on performance and burnout. *Psychology & Marketing*, *14*(6), 617-636.
- Whelton, W. J. & Greenberg, L. S., (2005). Emotion in self-critic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 1583-1595.
- Wilkerson, K. (2009). An examination of burnout among school counselors guided by stress-strain-coping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7*(4), 428-437.
- Wood, J. V., Salzman, J. A., & Goldsamt, L. A. (1990). Does affect induce self-focused atten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99-908.
- 투고일자: 2024. 4. 29.
 심사일자: 2024. 5. 23.
 게재확정일자: 2024. 5. 31.

Classification of Emotional Contagion Tendencies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and Predictive Variables for the Classes

Jin Sook Kim

Seoul Digit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latent classes exhibiting different patterns of susceptibility to emotional contagion through latent profile analysis. Additionally, It examined the effects of empathy-related predictors (empathic concern, compassion, interoceptive awareness) and psychological distress-related predictors (job burnout, depression, anxiety) that influence these latent classes. The analysis utilized data from 521 individuals, controlling for gender, age, and occupation. The latent profile analysis identified five latent classes: ① Low Negative Emotional Contagion, ② Desensitized, ③ Normal, ④ Self-Critical Emotional Contagion, and ⑤ Perspective Taking Emotional Contagion. Classes ②④ and ⑤ were deemed to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interventions. Pairwise comparisons between these groups were analyzed using a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analysis revealed that empathic concern was a distinguishing factor for the Desensitized class compared to the emotional contagion classes. Compassion was found to differentiate both the Desensitized and Self-Critical Emotional Contagion classes from The Perspective Taking Emotional Contagion class. Among the psychological distress variables, job burnout was a factor distinguishing the Desensitized and Self-Critical Emotional Contagion classes from the Perspective Taking Emotional Contagion class. The findings suggested that empathic concern, compassion, and job burnout could serve as meaningful psychological mediators of emotional contagion.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Keywords: Emotional contagion, Perspective taking, Self-criticism, Empathy, Burnout